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행동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더 높은 나라를 사모한 제자 시몬

(마 10:2-4)

Simon, the Disciple who Admired the Higher Nation

(Matt. 10:2-4)

1. 그의 이름과 배경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4절).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를 “가나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나’는 히브리어로 ‘카나’로 읽는데 ‘열심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셀롯은 영어로 zealot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열광하는 자’를 말하며 이 단어는 유대인들의 주요 당파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원 중 열심당원을 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1. His name and background

“Simon the Zealot and Judas Iscariot, who betrayed him (v. 4).
 Matthew listed twelve disciples of Jesus and he introduced Simon as ‘Cananites’. Canana in Hebrew reads ‘Cana’ which means ‘a person who is enthusiastic for everything. Zealot in English means, a person who is ‘enthusiastic’ and this word refers to the leading factions of Jews which were Pharisee, Sadducee, and Essene.

2. 셀롯 시몬의 제자 됨의 의미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어부들도 있었고, 매국노 세리도 있었고, 동시에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2. The meaning of Zealot Simon who became a disciple

It is very interesting that Jesus' disciples consisted of fishermen, tax collectors, and zealots. Like this, Jesus emphasized that they should love each other. It was necessary for them to be Jesus disciples.

3. 시몬의 회심

마태복음은 12제자를 두 사람씩 묶어서 소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마태, 작은 야고보와 유다 다대오, 셀롯 시몬과 가롯 유다. 예수님은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 서 전도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시몬의 짝이었던 가롯 유다는 회심하지 못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유다의 불순종에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3. Simon's conversion

The Gospel of Matthew introduced twelve disciples by binding two of them. Peter and Andrew, James and John, Philip and Bartholomew, Thomas and Matthew, James son of Alphaeus and Judah Thaddaeus, Simon the Zealot and Judah Iscariot. Like this, Jesus sent each pair to preach the Gospels.

Judas Iscariot who was Simon's partner did not converse and did not possess a real faith. However, Simon did not go along with his disobedience and he kept his faith to the end.

4. 그의 변화

본래 열심당원이었던 셀롯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민족에 대한 열정, 조국 이스라엘의 독립에 소원을 쉽게 저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민족과 조국에 대한 열정을 점차 더 높은 나라, 더 큰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정으로 변화시켜 갔습니다.

세계선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개인의 민족주의와 이념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셀롯 시몬은 개인의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4. His Transformation

After an enthusiastic Simon the Zealot became Jesus' disciple, he never lost his enthusiasm for his nation and his desire for Israel's independence. But Simon's enthusiasm for his nation became bigger, and his enthusiasm transformed to the eternal kingdom of God.

If we study the history of the world missions, we find that the big obstacle of missions is an individual's nationalism and ideology. However, Simon the Zealot overcame his nationalism and did his mission work with the vision of the Kingdom of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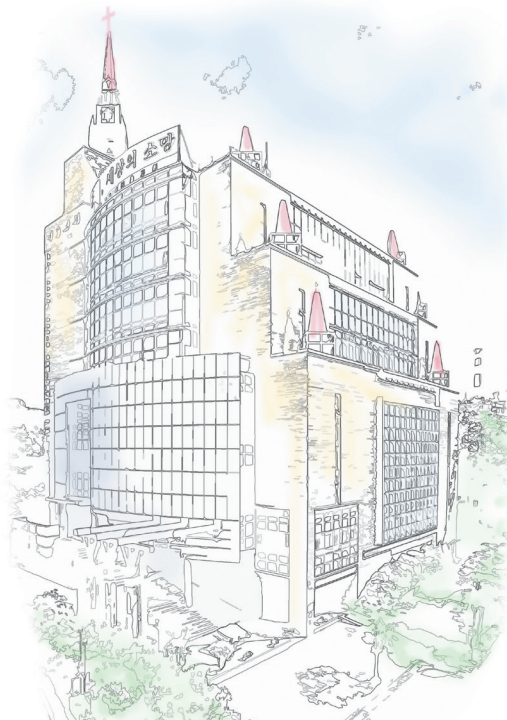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국가와 민족, 혹은 이념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과 민족, 그리고 이념에 목숨 바쳤던 셀롯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처럼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셀롯 시몬 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어찌하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마음껏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The kingdom of God is very higher and deeper than a nation, its people or ideology. After Simon the Zealot who gave his life to his country and people. He met Jesus Christ and just like Jesus loved the people of the world. He died a martyr for the eternal kingdom of God. Like Simon, we should concentrate on the eternal Kingdom of God, wherever we are and we should become one in Jesus.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people to be used full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09)

(문 108) 선지자 엘리사가 열왕기하6:19에서 아람 군대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죄책감은 없어도 되는지요?

(답) 기술적으로 엘리사가 외국의 침략자들에게 한 말은 그 상황의 빛 속에서 보면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왕 벤하닷이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보낸 원정군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했습니다. 그날 밤 엘리사는 도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사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도단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람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면 그들이 도단으로 올라가는 길은 더 이상 바른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에 엘리사는 그들에게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닙니다.'라고 바르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는 소경 된 이들을 옮겨줄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엘리사는 그들 앞서 거기에 가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쫓아 사마리아에 왔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는 엘리사에게 끌려 왔습니다. 그들의 눈이 다시 밝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잡혀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체포하려던 엘리사가 오히려 그들을 잡고 먹이고 마시우니 그들은 돌아간 후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왕하6:23)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저들을 소경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들이 완전 패배를 당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소돔에 찾아온 천사를 집으로 안내한 롯의 집에 소돔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경우는 거짓말을 하여 사건을 뒤집으려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는 자기 위치를 정직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준 사건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VIP초대 새생명 축제

11월 15일(금) 오전 11시, 17일(주) I·II·III부 찬양예배 시

사명자대회 전도의 결실인 VIP초대 새생명축제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5,700여명의 VIP를 작성하여 기도 중에 있다.

이에 사명자대회본부(부장: 오정수 장로)는 VIP초대 인도자와 VIP를 위한 소정의 상품과 그 날의 행사를 기획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사명자대회가 주로 어른들 중심으로 열렸지만 올해부터는 민족과 세계

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도 자체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각 교회학교 별 자체적인 VIP초대 새생명 축제를 준비 중이다.

이제 마음으로 작성하고 기도 중인 VIP새생명을 우리 교회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결신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전도에 힘쓰길 바란다.

W.C.C. 부산총회 참석자 3명 우리교회 방문

오늘(11월3일), 주일 2부 예배 참석

W.C.C. 부산총회에 참석하는 참가자 3명이 오늘 우리교회를 방문한다. 이들은 어제(11월2일-토) 서울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하룻밤을 민박한 후 오늘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교회를 소개받고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학교 각 부서를 참관할 예정이다.

2014년 섬김위원 봉사지원 신청

11월10일(주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토록

2014년도 섬김위원으로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지난 주 후보 삼지로 제공된 봉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10일(주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미 봉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 봉

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또 다시 봉사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기존봉사자 중 부서를 옮기기를 원하는 성도와 내년 새로이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만 제출하면 된다.



2014학년도 대입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

2014학년도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가 수능 당일인 11월7일(목)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수험시간에 맞춰 교역자의 인도로 찬양, 말씀, 간증 및 기도회로 진행되며 공동

기도 제목 및 과목별 구체적인 기도를 드린다. 이번 기도회는 고등부(지도 천세종 목사, 부장 차영도 집사) 교사들이 봉사하며 함께 기도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교시	시험영역	시험시간	인도
1	국어	8:40~10:00	천세종 목사
2	수학	10:30~12:10	박노철 목사 / 황 광 목사 / 천세종 목사
점심시간		12:10~13:00	
3	영어	13:10~14:20	한상은 목사 / 서명철 목사
4	사회 / 과학탐구	14:50~15:52	장석남 목사 / 황 광 목사
5	제2외국어 / 한문	16:20~17:00	유문건 목사

사명자대회 - vip초대 새생명축제

VIP를 만나러 가는 당신을 위한 작은 TIP

장석남 목사 (2013사명자대회 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니다. 그 분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실상은 죽었으나, 살아있다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구로 보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20:15)”

이 가을, 주님께서 친구삼고,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고, VIP로 삼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예수사랑, 영혼사랑을 마음에 담고, VIP에게 달려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이번 주 VIP를 만나러 가는 당신을 위한 팁을 성경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19:6)”



2013 사명자대회본부는 전도지로 활용할 초창가드 5종을 제작하여 배포중에 있습니다. 전도대상자에 맞게 활용하여 주세요.

사명자대회 - 중등부 VIP 초대

그리스도인의 심장으로



박형수 집사 (중등부 차장)

우리 중등부는 노정호 목사의 지도 아래 금번 사명자대회 동안 만지 않는 VIP 친구 5명을 작정하여 명단을 제출하고 그 중 1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VIP는 250명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으므로 사명자대회 50일 기간 중 매주 토요일에 기도시간(오후 3시~4시)을 정하고 각 학년별로 그 날의 주력반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이 모여 VIP 중보기도 대장에 기재된 학생들의 영혼구원을 위한 연속 기도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중등부 자체로 VIP초대 새생명축제를 11월 17일 주일에 개최합니다.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와 선교마임을 통하여 VIP친구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 후에 복음제시와 결신 및 식사교제를 통해 새 친구들이 우리교회 중등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사명자 대회 기간을 이용하여 전도와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몇 가지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암송대회에 역대 가장 많은 19명이 참가하여 야고보서를 영어로 암송하였고 개인부분 대상과 단체부문에서 수상하는 기쁨을 맛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도목사님께서 신앙의 리더가 될 학생 10명을 선발하여 6주간에 걸쳐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부딪히는 가치관의 문제를 말씀 안에서 세워나가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이 속한 가정과 학교 및 교회에서 거듭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심장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중등부”라는 중등부 표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버림받은 장애아동 30여 명을 돌보는 “소망의 집”을 우리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두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언감생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말입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택하셨단 말입니까
이것은 오직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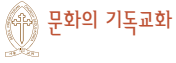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빛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에 빛진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이들은 아직도 저렇게 많은데
우리를
불러 주소서
우리를
세워 주소서
사명자로,
추수꾼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아버지께
새생명을 올려드리기
원하나이다

허경화 집사(9교구)





비파와 수금으로



이영조 집사
(아멘관현악단)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멘 관현악단은 시편의 말씀처럼 나팔 소리와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입니다. 아멘관현악단 초창기에 악기의 체계도 갖추지 못한 채 현악기를 든 몇 명으로 시작하였지만, 규모에 걸맞지 않게 관현악단이란 칭호를 이종운 목사님께서 붙여 주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믿음으로 달려온 결과, 초등학교 꿈나무들이 이제는 어엿한 성인 연주자로 성장하였고, 관악과 현악이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어, 이제는 어느 정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60대를 망라하는 아멘 관현악단의 특징은, 다양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조화입니다. 전공자들과 전공하는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어, 꿈나무와 아마추어들을 이끌면서, 임범창 집사의 정성을 다한 지휘로 준비하여 3부 예배의 헌금송을 매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서 고음에 이르기 까지 특성별 현악기와 관악기를, 단원들이 각각 다르게 연주하지만, 그 연주가 앙상블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단원 모두는 자기 역할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이루어진 다른 대형교회의 관현악단에 비하면 부족한 기 그지 없는 아멘관현악단이지만,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아멘관현악단(대장:이영조집사)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다. 임범창집사의 지도와 지휘로 “하나님 찬양”, “거룩 거룩 거룩”, “천국으로 가는 마차”, “높으신 주의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왕의 왕” 등 여섯곡을 연주하며 팀파니스트 윤주일집사가 호흡을 맞추어 함께 연주한다.

음악의 길을 가고자 하는 꿈나무들에게, 음악성의 개발은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의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몸으로 익히게 하는 산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멘에서 클라리넷을 시작하여 일전의 콩쿨에서 관현악부분 중등부 전국 1등을 차지한 김민주의 경우는 꿈나무 성공사례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관현악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살리닥 1차 수술 경과보고합니다



지난 10월29일 화요일 오후, 살리닥의 첫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이 붙어 기도삽관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분마취로 수술을 시작하였고 수술 초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무사히 첫 수술을 마칠수 있었습니다. 2시간여의 일차수술로 붙어있는 목을 떼어주고 왼쪽 겨드랑이와 팔꿈치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피부이식과 오른쪽 팔, 양손, 배 등 아직 4-5번의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후원 하나은행 215-196427-02404 서울교회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1월4일(월)-8일(금)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 우리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정수길 목사가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본교회를 사임하였다.
- 공연: 신모란 집사(15교구) “벨라보체 음악회” 11월 6일(수) 오후8시 예술의전당 IBK제임버홀/ “NOI 정기연주회-우리의 가을 이야기” 11월 9일(토) 오후5시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 주간식당봉사: 루디아전도회(11.3) 뱀뱀전도회(11.10)
- 금주의 식사: 차도훈 집사 남태영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서울강남노회 제53회 정기회

11월12일(화) 오전9시30분, 서울교회

서울강남노회 제53회 정기회가 11월12일(화) 오전 9시30분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회에 우리교회는 목사회원으로 박노철 한상은 서명철 장식남 황광 유문건 김안성 임규현 목사, 장로총대로는 오정수 노문환 이영기 서문석 홍성주 박정선 최학인 신용식 오광환 최광성 장로가 각각 총대로 참석하게 된다

군복무자 군선교사를 위한 기도회

오늘, 3부예배 후 905호

비전2020 운동본부(부장 : 이갑진 장로)는 군복무자 및 군 파송 선교사를 위한 기도회를 오늘 3부 예배후 905호에서 갖는다.

군대에 입대한 자녀를 두신 성도, 군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누구나 참석 할 수 있다. 많은 성도들의 참석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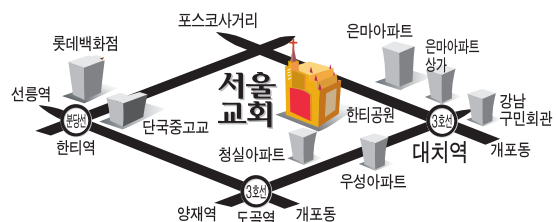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수능시험을 보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는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임을 깨달아 VIP들을 접촉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3. 우리교회 1인1사역의 비전이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로 이뤄져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